

#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통해 학생 발명품 선보여

지난 7월 20일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제18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의 개관식이 열렸다.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발명 및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발명의 생활화로 미래 지식기반 사회의 발명 꿈나무들을 양성하며, 학생들의 발명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발명 창의력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는 매년 발명 꿈나무들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허청과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가 후원하



김종갑 특허청장이 '제18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에서 발명에 매진해 온 학생들과 교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마찰의 원리를 이용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회전문에 끼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계식 브레이크 회전문'을 발명한 경북 사대부고 3학년 이미영 학생.

는 동 전시회에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상 학생들과 교사들의 발명품 등 총 5백40여점을 전시하였다. 총 1백92명의 수상자들을 기록한 이번 전시회에서 이미영 학생(경북 사대부고 3학년)은 마찰의 원리를 이용해 어린이들이 회전문에

끼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기계식 브레이크 회전문'으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미영 학생은 '뉴스에서 회전문에 끼어 크게 다친 아이를 보고 좀 더 안전하게 회전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발명의 시작이었다'며 '자동차 브레이크의 원리를 이용해 기본 회전문에 보조문과 브레이크를 장착함으로써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회전문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의 장려상 이상 수상자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홍천 관광농원에서 창의력 개발 캠프도 함께 하였으며, 8월에는 금상 이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일본 해외 연수의 기회도 주어지게 될 것이다.

# 발명진흥법 개정안, 상생의 법안으로 거듭난다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특허청의 발명진흥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허청이 마련한 타협안에 대해 최대의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와 과학기술계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5년여간 끌어온 직무발명의 처리 및 보상에 대한 법안(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난 6월 입법예고 이후 '간주된 자유발명' 규정의 삭제가 종업원의 권익 후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데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계 및 경영계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조율을 통해 특허청이 새로이 마련한 수정안을 양자가 모두 수용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여 동안 직무발명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경영계와 과학기술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번번이 실패한 바 있으나, 금번 타협은 이해관계단체가 정부의 설득과 중재노력을 적극 수용하여, 그간의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경영계와 과학기술계에 모두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을 찾음으로써 지난 5년간 미루어져 있던 큰 숙제를 해결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금번 합의된 수정안을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간주된 자유발명' 규정을 과학기술계 요구를 수용, 개정안에 반영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후 4월내 출원하지 않으면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합의된

수정안에서는 현행규정은 삭제하되,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종업원이 동의해야만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금번 수정안을 통해 사용자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출원 시기, 출원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략적인 특허경영을 통해 점점 치열해지는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한 국내외의 경쟁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종업원은 사용자가 발명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자유발명으로 되어 종업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 NHN과 특허청, 특허 검색 서비스 제휴

NHN(대표 최희영)은 특허청(청장 김종갑)과 포괄적 업무 협정을 맺고 올 하반기 중 자사의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특허관련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지난 7월 21일 밝혔다.

NHN은 이번 특허청과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특허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바로 접속하

지 않고도 특허 전문 DB 검색결과를 손쉽게 볼 수 있는 '특허 다이렉트 검색'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NHN은 올 하반기 중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용어의 해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특허청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원문 서비스, 특허정책 홍보와 민원서비스 등 특허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네이버 '특허'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NHN 최희영 사장은 '이번 특허청과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들은 네이버에서 특허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선보일 특허 검색 서비스를 통해 특허 정보의 활용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간편해진 등록세, 수수료 납부로 민원 불편 해소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던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수료 등의 납부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수료 징수 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절차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특허권 등을 이전등록하거나 상표권을 설정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료는 특허청에 따로 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특허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자 번호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료 납부서를 접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등록결정 시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수수료 부족 또는 미납으로 보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감면 입증서류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초 감면 시 한번만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 특허청을 수차례 오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과 동일서류의 중복제출 없이 보다 간편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은 종전에 지나치게 긴 법령제목을 단순화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변경,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소멸관리회복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멸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및 금액을 규정하고, 개정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신설내용과 용어변경 등 의장법의 개정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삼순이,삼식이' 탄 상표 출원 늘어

상 표	상품/서비스업	현황
삼 순 이	세탁기구	등록 (00.6.25)
삼 순 이	주방기구	등록 (04.11.28)
삼순이 시골감자탕	요식업	등록 (04.4.9)
삼순이 피자영어빵	빵류	등록 (02.11.8)
삼순이	완구업	출원 (05.6.16)
삼순이	가구류 의제서리류	출원 (05.5.31)
삼순이	가구류 의제서리류	출원 (05.6.13)
삼 식 이	다량음, 판매용, 소분용, 포장용, 포장용	등록 (05.5.18)
삼 식 이	과자류(떡, 불독치, 라면, 만두, 매추, 설렁떡, 크림떡)	출원 (05.6.14)

'삼순이, 삼식이'로 상표 출원 및 등록된 사례.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며 종영을 한 후, 주요 등장인물 이름인 '삼순이' 또는 '삼식이'를 탄 상표 출원이 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드라마 방영 이전 주방용품에 집중되던 '삼순이' 상표가 최근 빵류, 레스토랑을 비롯한 요식업과 완구류, 가구업 등에서 상표 출원이 줄을 잇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드라마 방영 이후 출원 신청한 삼순이 1호는 '삼순이 침대(6월 13일)'. 바로 다음날 과자류 '삼식이'가 출원됐으며, 이틀 뒤 완구 '삼순 피그(Pig)'가 출원됐다. 방영 이전 등록된 '삼순이' 상표 주방용품으로는 세탁기구인 '삼순이'가 있다. 세탁기구 삼순이는 지난 '90년 6월 출원되어 약 15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밖에도 요식업(삼순이 시골감자탕), 빵류(삼순이 피자 영어빵, 사진) 등에서 '삼순이'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예전에도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주인공이나 출연자들의 이름인 대장금, 한상궁, 왕건, 해신, 장보고 등이 상표 출원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TV 인기 드라마의 이름과 캐릭터 방영 이후 곧 상표로 출원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 노래방 관련 특허출원 활발

노래방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되어, 노래반주는 물론, 영상채팅, 게임, 노래경연, 웹접속 등이 가능한 '인터넷 노래방'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노래 반주기, 인터넷 노래방 등 노래방과 관련한 기술의 특허 출원은 지난 5년간 총 2백82건으로 2000년 46건에서 2002년 52건, 2004년 57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 네트워크와 결합된 첨단 다기능 노래방 관련기술의 특허출원 현황은 총 84건으로, 전체 노래방 관련 출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7건, 2002년 15건, 2003년 18건, 2004년 24건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PC를 통하여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노래방이 가능한 '웹 노래방' 및 핸드폰을 통하여 노래방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노래방'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IT 기술의 컨버전스(융합) 추세에 따라 노래방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되어 노래방에 다양한 첨단 기능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단순 반주기능 만의 노래방으로는 고객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기존 노래방에 인터넷접속 등 첨단 기능을 부가하여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신세대 등의 취향에 맞출 수 있어 고객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앞으로 노래방 관련 기술은 노래방 기기 또는 멀티미디어 PC와 인터넷 관련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결합되어 더욱 새로운 형태의 노래방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관련기술의 특허 출원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음식점 창업 성공에도 '특허 바람'

입맛을 돋우는 요리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음식점 창업에 특허 바람이 불고 있다. 법으로 보호받는 차별성을 갖고 있을 경우 성공 창업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 등록을 한 창업 브랜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퓨전 닭요리 전문점 '핸드다운(대표 임웅천)'은 지난 7월 18일 '최근 자체 개발한 '낙담 바베큐' 요리의 모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했다고 밝혔다. 핸드다운의 '낙담 바베큐'는 닭고기를 바비큐 구이 한 뒤 살짝 데친 낙지와 매운 바비큐 소스로 볶은 요리로 맛과 향이 독특해 갈수록 고객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 임웅천 대표는 '최근 인기 제품을 모방한 유사 외식 창업이 많은데 '낙담 바베큐'를 특허 등록하면 본사와 가맹점들이 유사업종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핸드다운은 특허출원을 계기로 전국 지사와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꼬투리 김밥(대표 조희주)'은 김밥 한 줄을 모두 꼬투리로 만드는 독특한 제조법과 장치로 특허를 받아 인기를 끌고 있다. 꼬투리 부분이 유독 맛있고 잘 나간다는 아이디어를 얻어 꼬투리 김밥들을 개발, 현재 한 매장의 전체 매출 중 김밥 비중이 70%를 차지하여 성업 중이다.

외식 브랜드인 '와! 돈(대표 윤양효)'은 주메뉴인 '대나무 와인숙성 통삼겹살' 숙성비법을, '초록갈국수(대표 탁원)'는 천연 녹즙으로 빚은 면발과 시원한 육수가 어우러진 3·3무지개갈국수, 꽃갈국수, 해장해물국밥을 특허 출원했다.

한국전통연구소(소장 윤숙자)가 서울 종로 외랑동 본점과 인사점 2곳에서 운영하는 떡카페 '질시루'는 '떡 샌드위치'와 3개월 보존 가능한 떡을 개발, 특허권을 따냈다. 특히 3개월 보존 가능 떡은 즉석 핫반처럼 실온에서 오래 뒀다가 언제든지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넣어 데우면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정희 소장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받아들여 기존 상품 유행에서 탈피한 이른 바 '발상전환 마케팅'이 각광받는 때인 만큼 특허와 실용신안 등 차별화된 맛과 기술이 향후 창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특허정보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특허정보원이 지난 7월 6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올해를 2010년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은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갑 특허청장, 이윤우 한국특허정보원 이사장, 안광구 전 통상산업부 장관, 임내규 전 산업자원부 차관, 민경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등 전·현직 특허청장 및 한국특허정보원 역대 임원, 유관기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또한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날,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10주년 기념 사사(社史)'를 발간,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95년 7월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거,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



한국특허정보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민경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김성환 특허청 정보기획관, 김종갑 특허청장, 안광구 전 통상산업부 장관, 이윤우 한국특허정보원 이사장, 임내규 전 산업자원부 차관, 김홍두 한국특허정보원 감사, 유영기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왼쪽부터).

술정보센터로 설립된 이래, 특허기술정보 온라인서비스(KIPRIS)를 통한 특허정보 보급·확산, 특허청 연계사업, 특허행정지원 등을 수행해 온 한국특허정보원은 2001년 12월 현재의 명칭으로 독립법인화한 이후 범국민적 특허기술정보 보급 확산에 힘써왔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지난 10년간 성장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구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지식창출을 통한 변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미래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고객과 하나 된 초일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반도체 설계 공모전 대상 훈격, '대통령상'으로 격상

반도체 설계 공모전 최고상인 대상의 훈격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됐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올해 열리는 '제6회 반도체 설계 공모전' 대상의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올라갔고, 산업자원부장관상 1점이 추가되는 등 시상규모가 확대됐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반도체 설계 공모전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설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설계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0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이 공모전의 대상은 산업자원부 장관상으로 시작해 2002년에는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됐고, 이번엔 대통령상으로 훈격이 조정되어 권위를 인정받게 됐다. 시상규모도 확대되면서 전체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산업자원부장관상 2점, 특허청장상 5점으로 각각 확정됐다.

지난 4월 29일 올해 공모전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

과 응모팀 수는 지난해에 비해 150% 증가한 48개 팀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 4팀, 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이 8팀에 달해 최근 시스템 온 칩(SoC: System on a Chip) 기술에 대한 인식 확산과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의 R&D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허청은 응모한 팀들이 8월 12일까지 설계결과물을 제출하면 총 18명의 반도체설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초에 수상자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결과물인 SIP(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반도체설계재산) 세계 시장규모는 2003년 10억2천만달러에서 2004년에 12억 3천만달러로 21% 성장했고, 미국과 영국 등 기술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분야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특허청, 재난복구센터 개통으로 출원시스템 구축 완료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천재지변, 방화 등으로 특허데이터 유실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재난복구센터를 서울사무소에 구축 완료하고 지난 7월 6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특허청이 구축한 재난복구센터는 기존의 대전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전산센터가 태풍, 홍수, 테러, 방화 등의 재난 및 시설·설비의 고장, 심각한 사이버 범죄 등으로 인해 컴퓨터나 저장장치가 훼손되어 특허 데이터가 유실되는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3시간 이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전산센터이다. 재난복구센터는 대전 특허전산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출원인, 대리인 등록에서부터 출원 후 수수료 고지 등에 이르기까지 출원 접수 업무와



특허청은 지난 7월 6일, 천재지변과 방화 등으로 특허데이터를 유실했을 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재난복구센터 개통식을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가졌다.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백업(back-up)하여 유사시 복제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또한 대전 특허전산센터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재난 발생시 이를 즉시 감지하고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복구시 양 센터 간 신속한 데이터 이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특허청은 기존의 특허전산센터 내의 주요 장비의 이중화

구성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해 재난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함에 따라 데이터 유실 방지는 물론 비상시에도 최단 시간 내 온라인출원 및 접수시스템을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어, 오는 11월부터 24시간 온라인출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